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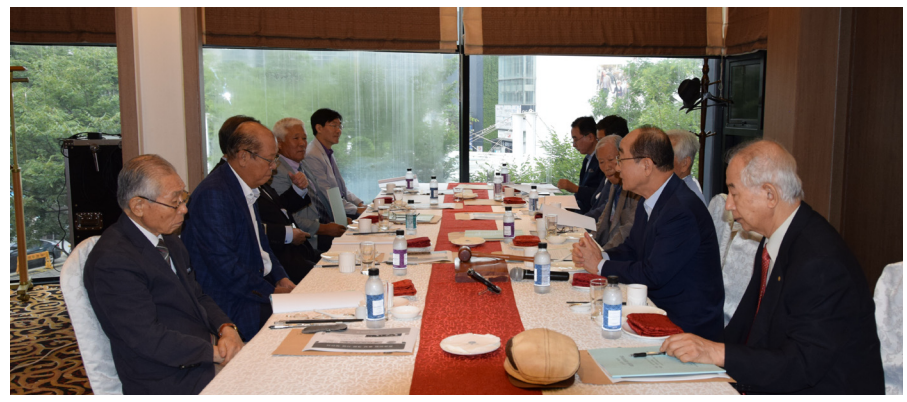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3호(1955년 6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9월 30일(일)

2018년도 제3차 회장단회의 개최

◎ 일 시 : 2018년 8월 30일 오전11시
◎ 장 소 : 중구 퇴계로 18길5(동보성)
◎ 참석자 : 회장(대평)
부회장(의칠, 상록, 상국, 현근, 찬구, 일용, 정보)
감사(상렬, 상현, 현보)
※ 배 석 : 총무이사 심언태(사회), 재무이사 심규정
문화이사 심갑택, 관리부장 손인숙

대종회는 회장단 16인중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1) 대종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종보 기자단(주부, 대학생) 모집, 3) 청송 찬경회관 옥상방수공사, 4) 4세조 청성백 묘소 문화재 지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대종회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과 각종 위원회 설립 및 기타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주요 의결사항

부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대종회의 중추적 의결기관인 회장단 회의를 보강하고, 대종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및 기타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정관을 일부 개정토록 함
임원 선출규정 제정안 심의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들을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출하기 위하여 새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함
대종회운영발전위원회 규정 제정안 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연구 검토와 논의를 통해 대종회 운영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종회운영발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토록 함
재무회계 규정 제정안 심의	대종회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재무회계 규정을 제정토록 함
종보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대학생 등 젊을 세대를 독자로 확보하고 일가 간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종보를 도입하고,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종보 편집위원을 일부 보강하는 등 대종회 종보가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종보 편집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토록 함
손해배상청구소송 건 심의	2017. 11. 28. 회계부정 사건 관련 전 재무이사와 전 상임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2386)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사자(피고)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결론짓고 본 소를 취하하기로 함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심의	현 판사공(5세조)파 종회 심상우 회장을 2018. 3. 29. 사임한 전 심상식 대종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보선함

2018년 戊戌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17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大宗會
	中臺墓所	10.17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大宗會
二	閭門祗侯公(諱:淵)	10.19	09.11	금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大宗會
二	奉翊大夫公(諱:晟)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諱:龍)	10.21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21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大宗會
三	判書公(諱:漣)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上護軍公(諱:鄕)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四	靑城伯(諱:德符)	10.23	09.15	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大宗會
四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10.25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大宗會
★時享 奉享時間 : 始祖 12時(正午) 그 外는 午前 11時에 奉享함★						
五	都摠制公(諱:仁鳳)	10.25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小宗會
五	判事公(諱:義龜)	11.22	10.15	목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1315(설단)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諱:繼年)	11.22	10.15	목	광주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 配位 崔氏	11.23	10.16	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小宗會
五	仁壽府尹公(諱:澄)	10.25	09.17	목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小宗會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5)

이 틈에 좁쌀이 끼었다네

- 청성백 정안공(諱:德符)할아버지

심후섭(沈厚燮)

종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 · 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우리 청송 심가를 나눌 때에 '경파(京派)'니 '향파(鄕派)'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경파는 '서울 경(京)'을 써서 서울을 중심으로 터를 잡은 일가(一家)를 말하고, 향파는 청송을 중심으로 한 향리(鄕吏)에 자리를 잡은 일가를 가리킨단다.

왜 경파와 향파로 나뉘어졌을까?

청화부원군 용(龍) 할아버지는 아들을 둘 두었어. 맏이는 정안공(定安公) 덕부(德符) 할아버지이고, 둘째는 악은공(岳隱公) 원부(元符) 할아버지야. 정안공은 이성계(李成桂)와 전쟁터에서 자주 만나 의기투합하던 관계여서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할 때에도 뜻을 같이 하였어. 그래서 정안공은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 나갔어. 이러한 연유로 정안공 후손들도 주로 서울에서 터를 잡고 번성했지.

여기에 비해 동생 악은공은 세 아들에게 '나는 고려조의 신하이지 조선의 신하가 아니다. 나는 이 길로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갈 것이니 오늘을 나의 제삿날로 여기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글이나 읽으면서 벼슬하지 말기 바란다.' 하고는 길을 떠나셨어. 그래서 형인 정안공 후손은 '경파'가 되고 동생 악은공 '후손'은 향파 가 된 것이야.

정안공께서는 조선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서 크게 공을 세워 높은 벼슬도 받았지만 마음은 크게 편하지 않았어.

'동생도 두문동으로 들어가 소식이 없고, 나를 형님처럼 여기며 따르던 정몽주(鄭夢周)의 목숨도 구해주지 못했다. 내 비록 지난 고려 왕조가 무능하여 백성들을 구하고자 혁명에 가담하였지만 억울하게 죽은 이가 너무 많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아니하랴.' 그리하여 정안공께서는 벼슬을 내어 놓기도 했어. 그러나 나라에서는 곧 다시 벼슬을 내리곤 하였지.

조선이 세워진 이듬해인 1393년의 일이었어. 이 무렵 정안공 연세는 66세였어. 이 해 초가을 어느 날, 나중에 태종(太宗)이 된 이방원(李芳遠)이 찾아왔어.

"어르신, 저녁을 들고 계시는군요."

"어서 오게. 어쩐 일인가? 몹시 바쁘실 텐데!"

"네, 전하께서 어르신의 아드님 종(淙)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안공의 여섯째 아들 종(淙) 에게 경선공주(慶善公主)를 시집보내고자 허락을 받으러 아들 이방원을 보내었던 거야. 그런데도 정안공께서는 선뜻 대답하지 않으셨어.

"으음……. 내가 입을 좀 헹구고 오겠네."

정안공은 밖으로 나와 한참 서성거렸어.

'내가 만약 계속해서 이성계와 손을 잡으면 역사는 나중에 나를 무어라 평할까? 동생과는 다른 길을 택한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정안공의 가슴에는 함께 하지 못한 동생이 자꾸만 떠올랐어.

"형님, 저도 이 고려에 앞날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길을 가겠습니다. 형님은 새 나라를 건설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동생 악은공의 마지막 인사가 귀에 선하였어. 정안공께서는 마당을 서성이며 별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 방으로 들어왔어. 기다리다 지친 이방원이 원망하듯 말했어.

"어르신, 입을 헹구는 시간이 어찌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으음,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이 틈이 많이 벌어졌네. 이 사이에 끼인 좁쌀 알갱이를 빼어내느라고 좀 지체하였네."

"아니, 어르신은 나라의 공신으로서 수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으셨는데 조밥을 드시다니요?"

"그럴수록 조밥을 먹어야지. 나에게 딸린 식솔이 얼마인가? 그들이 모두 조밥을 먹는데 어찌 나 혼자 쌀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먹으려면 다 같이 먹어야지."

이방원은 정안공께서 밀쳐 둔 밥상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과연 상 위에는 조밥 그릇과 간장 종지 등 서너 개가 놓여있었어. 이방원은 정안공의 검소함에 놀라 더욱 매달렸어.

"어르신, 부디 종(淙)을 저의 집으로 장가보내어 주십시오."

사실, 이성계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정안공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였던 거야. 여전히 이성계에게 굴복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고려의 세력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성계는 정안공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정안공의 지원을 더욱 확실하게 받고 싶어 하였던 거야.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 1380년(우왕 6년) 53세 때에 이미 정안공은 삼남도원수(三南都元帥)가 되어 그 동안 골칫거리였던 왜구를 대대적으로 격퇴시켜 임금으로부터 황금 오십 냥(兩)을 상으로 받을 정도였고, 1382년 55세 때에는 서북면도순문사겸평양윤(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尹)에 임명되어 북방의 경비를 튼튼히 하는 업적을 세워 나라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어. 그러니 이성계도 출전할 때마다 정안공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나아가곤 하였어.

"형님, 이번에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안공께서는 1328년에 태어나셨고 이성계는 1335년에 태어났으니 일곱 살이나 더 많았어. 그래서 이성계는 정안공을 형님처럼 따랐지. 정안공께서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무리하지 않으셨어.

그리하여 64세 때에는 청렴하고 충성스럽다는 뜻을 지닌 청성군충의백(靑城君忠義伯)에 봉작(封爵)되기도 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임명되기도 하셨어.

우리가 보통 청성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벼슬에 기인한 것이고, 정안공(定安公)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은 시호(諡號)가 정안(定安)이기 때문이야. 처음 시호는 공정(恭靖)이었으나 나중에 정안(定安)으로 고쳤지. 정안은 전쟁에 나도 불필요한 살육은 하지 않고 적들을 쫓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였기에 그 성품이 온순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평에 따라 새로 붙여진 시호야. 시호를 바꿀 만큼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

우리 정안공께서는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은 알았으면 좋겠어.

다음호에 계속

정안공 묘소

재각 삼문

교육 문화코너

남일(南一) 심수택(沈守澤) 의병장 108주기 추모식
"나를 따라서 조국과 겨레를 지켜라!"

지난 9월 6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이 고향인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에서 기관장, 사회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유족 일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대종회에서는 수영 편집위원, 재석 문학박사, 갑택 문화이사가 참석하여 분향하였다. 아직도 공의 손자인 만섭(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씨가 고향에서 대대로 살며 공의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선조님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국권침탈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직하셨다. 기념관에서 공의 기록을 보며 숭고하고 거룩한 애국정신에 감명을 받았고, 훌륭한 선조님이 계시다는 것에 숙연해진다.

남일 심수택(南一 沈守澤)의병장 본관은 청송(靑松) 지성주사공(知成州事公諱:繼年)파 22대손이며, 1871년 3월 30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에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심의봉(沈宜奉)과 진주 강씨(姜氏) 사이의 三男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수택(守澤)이고 자는 덕홍(德弘)이며, 호는 남일(南一)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1907년 9월 기삼연(奇參衍)의병장이 주도하는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에 참여하였고, 그 해 12월 5일 전남 각지의 향교에 통문을 돌리고 {격고문}을 붙여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덕동재에서 거의하였다. 처음에는 김율(金律)의 진의부장(部長)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3월 30일 김율 의병장이 피체되자 의진을 수습하고, 300~700여 명의 의진을 전남 중남부 지역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다.

의병장 남일 순절비문(義兵將南一公殉節碑文)

여기 一生을 조국수호(祖國守護)의 제단(祭壇)에 바친 의병장 심공은 명(名)은 수택(守澤)이요, 호는 남일(南一)이요, 본관(本貫)이 청송(靑松)이요, 려말(麗末)의 절신둔재계년(節臣遁齋繼年)의 후예(後裔)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의봉(宜奉)의 삼남(三男)으로 辛未年 서기 1871년 2월 10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성(天性)이 총명하고 재질이 뛰어나 성경(聖經)과 현전(賢傳)을 배워 충효의 뜻을 깨달아 자기의 갈길을 정하고 병서와 역학을 읽어 무술의 묘법을 익힘으로써 내일의 국난(國難)에 대비 하더니, 을미년 1895년 일본인의 손에 국모가 살해된 뒤 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공(公)은 (27세)의 청년으로서 비분한 뜻을 참지 못해서 10년이 지난 뒤 이른바 을사매국조약(乙巳賣國條約)이 체결되자 공은 산업(産業)을 폐하고 오직 왜적을 내쫓아 국권을 되찾기 위한 경륜(經綸)에만 몰두하더니, 다시 2년 뒤 丁未年에 고종황제의 폐위(廢位)와 함께 군대마저 해산되므로 공은 비로소 의병(義兵)을 일으켜 함평 신광 산중에서 훈련을 거듭하며 각도에 격문을 전하고 왜적을 따르는 탐리배 들에게 격문을 뿌리자 수월도안에 각처로부터 모여든 의병들이 무릇 700명을 넘었다. 1907년 37세 되던 해 3월 제1차 강진, 오치전투에서 왜적 수십급을 목 베고 그로부터 무릇 3년 동안에 전후 20회를 싸웠는데 장흥, 관암과 신풍, 남평, 장담원과 거성동, 능주, 노구도와 석정과 풍치, 영암, 사촌, 나주, 반치, 해남, 성내, 보성, 웅치, 천동 등에서 왜적의 수많은 군대와 마주 싸우며 어느 때는 기이한 계책으로써, 또 어느 때는 담략으로써 오직 전승 무패 한 의병장이요. 엄격한 규율 중에서도 언제나 부하와 함께 감고를 같이 했으며, 민중을 사랑하고 어루만지므로 누구나 공을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건마는 때는 이미 다 되어 스러지는 나라를 떠받들 길이 없고, 의병해산의 조서까지 내려 사기마저 꺽이므로 공은 양천호곡하기를 마지 못했다. 그러나 乙巳年 1909년 10월에 능주 풍치에서 적에게 잡혀 광주감옥에 갇히되 왜장을 꾸짖는 늠름한 자세는 자못 태산에 비길 만했고, 그 해 12월 대구로 이송되어 왜의 법정에서 대의를 들어 웅변하고 온갖 고난에도 굽히지 않는 기백은 열일에 견줄 만 했으며, 마침내 庚戌年 1910년 10월 4일 교수대에서 향년 39세로 태연자약하게 순국하신 것은 완전한 시사여귀(視死如歸)의 모습이라.

우리는 오늘여기 공(公)의 뜻과 행적을 돌에 새겨 길이 전(傳)하고 자주독립노선(自主獨立路線)으로써 우리 민족(民族)의 갈 길을 삼으려 한다.

서기1972년1월

의병장 남일 심공 순절비건립위원 (義兵將 南一沈公 殉節碑建立委員)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남일의병장 동상

남일문

추모식 만세삼창

좋은 글

옥에 티

옛날 중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어느날 두 명의 신하를 불러서 그들에게 아주 맑고 깨끗한 옥구슬 하나씩을 상으로 주면서 잘 간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옥구슬에는 아주 작은 티가 있었는데 왕이 일부러 티를 내고 모른 척 두 명의 신하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옥구슬을 받아든 두 명의 신하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그 아주 맑고 깨끗한 옥구슬에 아주 작은 티가 있다는 것을 두 명의 신하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의 신하는 그 옥구슬의 티를 없애고자 티를 긁어 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신하는 오히려 옥의 작은 티보다 그 외의 부분을 매일 같이 잘 닦고 또 닦고 그렇게 잘 간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 계절이 가고 어느날 왕이 그 두 명의 신하들에게 옥구슬을 다시 가져와 보라 명하였습니다.

그들의 옥구슬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의 티를 어떻게든 없애고자 티 부분을 긁어대었던 신하의 옥은 그 티 부분이 더 커져서 아주 못 쓰게 되어버렸고, 반대로 다른 신하의 옥은 그 티 부분이 어디인지 정말 티가 나지 않게 전체적으로 더 반짝이고 맑은 옥구슬이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불완전한 존재이고 단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점을 없애고자 매일같이 비난하고 후벼 파면 그 단점은 더 커져 아주 못 쓰게 되겠지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끌어주고 살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작은 단점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의정 晩沙相公 沈之源(심지원, 1593~1662)의 업적과 淸德碑

- 인수부윤공(沈澄)의 후예로 가문을 빛내다 -

심재석(역사학 박사. 종보편집위원)

1. 경북 永川의 <沈之源 淸德碑>를 찾아가다 : 만사상공의 신도비에는 공께서 영천과 홍성의 군수로 나간 적이 있다고 하며, 이임 후 선정비가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영천선생안〉에도 보인다. 부랴부랴 비석의 현존 상황을 탐문해 보니, 영천의 것은 남아있고 홍성의 선정비는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9월의 선선한 새벽바람을 등지고 인천에서 서울역을 거쳐 영천시내 조양공원으로 향하는 필자의 심사는 즐겁기 그지없다. 조양공원 내에 일군의 비석들이 줄 지어 서 있고, 그 중에 '군수심공지원청덕비'가 있었다. 백성들이 흠모하고 감사해서 세워준 청덕비를 찾아가는 행운이 나에게 오다니. 감격이다.

1) <심지원 청덕비>의 현존 상태 : 청덕비는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을 기리어 세운 비'이다. 만사공께서 청렴하여 언제나 가세가 빈한했기에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민망함이 있었다. 이에 41세(1633)에 어머니를 시골에서 편히 모시기 위하여 인조대왕에게 진정하여 영천군수가 된다.

〈청덕비 전면〉

十 七 崇 皇
月 年 禎 明

郡守沈公之源淸德碑

後 猗 氷 珪
世 歟 玉 璋
難 我 之 之
忘 侯 光 資

병자호란 이후 관직이 제한되다가 억울함이 풀리면서 영천군수가 되었다. 1년 간 애민 구휼에 온 힘을 다 하였고, 떠난 후 백성들이 청덕비를 세워, 지금도 영천시 조양공원 思賢臺에 보존되고 있다. 만사공 청덕비의 비석 머리 문양이 특이하다.

〈청덕비 머리 부분〉

만사상공은 청성백(덕부)과 인천 문씨 사이에서 태어난 인수부윤공(澄)의 9대손으로 청성백(德符)-인수부윤공(澄)-양혜공(石雋)으로 이어지는 명문가 후예이다.

2) <청덕비 후면> 내용과 외증손 이명희 군수의 청덕비 재건립

〈청덕비 후면〉

영천의 조양공원에는 목민관의 선정비 21좌를 모아둔 思賢臺가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비문이 바로 만사공의 청덕비 후면 기록이다. 1년 간 영천군수로 재임한 만사공은 사헌부 中丞(=執義. 정3품)로 발령받아 조정에 들어갔다가 효종 때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이후 영천 사림들의 공론에 따라 松谷書院에 배향됐다.

만사공 이임 후 세워졌던 청덕비는 82년이 흐른 후 외증손 이명희 영천군수가 1714년에 부임 한 이후 재건립되었다. 훗날 승지도 역임한 이명희(순흥부사, 청풍부사, 상주목사, 승지 역임) 영천군수는 심지원 청덕비가 낡고 이끼가 끼어 퇴락해 있는 상항을 보았다. 그리하여 후손으로서 그리고 후임 목민관으로서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여 정성껏 비각을 짓고 비문을 다시 새겨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소망하였다. (청덕비 후면의 원문 전체는 이 원고 하단의 '부기' 참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 할 수 있는 조양공원의 비이다.

3) 영천시 청태면 <송곡서원>에 배향되다 : 만사공은 숙종 때 송곡서원에 배향되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오랜 세월 지역유림과 백성들의 추숭을 받았다.

만사상공을 배향했던
〈송곡서원〉(영천시 청통면 애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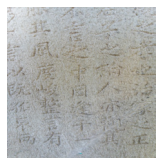
한 인물이 서원에 배향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림들 모두가 그의 인품을 공인하고 존경하는 공론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영천 출신이 아닌 만사공이, 단 1년 만 근무했던 그곳의 서원에 배향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사상공의 훌륭했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청덕비를 만난후 방문한 송곡서원의 가을은 쓸쓸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훼철한 이후 이 서원도 근래 재건립된 건물이다.

4) 사라진 홍성의 <홍주목사 심지원 去思碑> : 만사공이 51세(1643년)에 홍주목사로 부임하여, 그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던 지 去思碑가 백성들에 의해 건립 되었다. 공은 목사 재임 당시에 청렴하고 강직하여(廉謹)하였으며,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여 조정의 혜택이 민간에게 미치는 것을 방(榜)으로 官門에 붙였다. 이로써 시골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백성에게까지 그것을 알리는데 힘쓰니 벼슬의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갈 때 홍성의 백성과 선비들이 去思碑 즉 善政碑를 세웠던 것이다. 언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으나 아쉽기 짝이 없다.

2. 명필 재상 심지원의 글과 필적을 찾아서

1) <정창연 신도비>를 썼다(書) : 영천의 청덕비를 만난 후, 필자는 서울 동작구 사당5동의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을 찾아갔다. 만사공은 명필로 이름나 있었기 때문에 좌의정 정창연의 신도비문의 글씨를 쓴 것이다.

만사공이 글씨를 쓴 〈수죽정공신도비각과 신도비〉(동작구 사당5동 '동래정씨묘역')



만사공 친필의 정창연신도비 - 본문 일부분

만사공 친필의 정창연신도비 - '沈之源 書' 부분

신도비의 주인공인 정창연의 손자가 영의정 정태화이다. 만사공이 영달하고 있을 때 동래 정 씨 가문의 영의정 정태화 역시 효종의 사돈으로서 정계를 이끌고 있었다. 만사공과 정태화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고 각기 아들이 효종의 부마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좌의정 정창연의 신도비 '글씨'를 만사공이 썼다.

이 신도비는 대표적인 17세기 비석으로 문장과 서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서체는 바로 우의정 시절의 만사공 필적인 것이니 우리 심 문의 중요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정성들여 쓴 유려한 만사공의 필적을 만날 수 있다.

필자가 사당동의 정 씨 묘역을 방문하여 보니 이 신도비는, 비석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여 탁본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글씨가 콩알만큼 작아서 도저히 작업이 어려워 사진만 찍고 내려왔다.

2) <권득기 묘갈명>을 지었다(撰) : 성남시 금곡동 '쇳골마을'에 만사공의 장인이신 권득기 공의 묘갈이 있다. 공의 초배위 안동 권 씨는 만사공이 19세에 결혼하여 41세 정월에 사별하였다. 자식이 없었다. 이후 파평 윤 씨와 혼인하여 익상, 익현, 익창, 익성 등 4남 2녀를 출산했으며, 익현이 효종대왕의 사위인 부마가 되어 집안의 품격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만사공은 효종대왕과 사돈 관계가 된 것이다.

권공이 돌아가시자, 만사공이 사위로서 비문을 쓰게 되었다. 공은 비문에서 "지나간 일을 회상하니 눈물이 흐른다."면서 "士林이 (권득기 선생을) 의지하니 百世의 스승"이라고 추앙해마지 않았다. 필자가 이 비석을 찾아간 날은 보슬비가 내려 급히 탁본을 마쳐야 했다. 도심의 산속에서 만사공의 '엄호'를 받으며 홀로 묘갈명의 후면을 탁본하였는데 전혀 힘든 줄 몰랐다.

만사공이 비문을 작성한 〈권득기묘갈명〉(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쇳골마을)

권득기 묘갈명 탁본

3. 병자호란(1636)과 심지원 : 병자호란이 발생하였을 때 만사공은 왕을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공의 병든 아우가 있어 함께 피난하려다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은 노모를 충청도 楮島에 모셔놓고, 남한산성 근처에 이르렀으나 왕이 강화도로 갔다는 소식에 부득이 근왕병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왕을 호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수년 간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門外黜送으로 충청도 저도와 영남의 풍기를 전전하다 홍주목사에 임명되었다(1643).

〈다음호에 계속〉

沈氏가 이미 국모(國母)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찌…

安孝公(諱:溫) 600주기 기신제향

세종장헌대왕실록 (즉위년1418)

상왕이 말하기를 "심인봉(沈仁鳳)은 곧 심정의 형이다. 비록 세력이 없더라도 역신(逆臣)의 형으로서 안연히 입직(入直)하는 것이 의리(義理)에 편안하겠느냐". 하니,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곧 신 등의 죄입니다."고 하다. 상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병권(兵權)을 내놓지 않는 것은 왕위(王位)를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상을 위하여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후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친(至親)을 이간(離間)시키는 것은 여러 소인(小人)의 무리로 말미암음이다. 어찌 크게 징계하여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리오".

26일 상왕이 박은, 조말생, 이명덕,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상인과 이 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일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다. 괴수(魁道)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 두었다가 대질(對質)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人心)과 천의(天意하늘의뜻)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질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한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차등(差等)이 있겠습니까?"고 하다. 이에 의금부에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 일이 많사오니, 속히 형(刑)을 집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상인은 형륜대로 시행하고, 박습과 이관, 심정은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네 사람의 부자는 교형을 면제하여 종을 삼고, 이각과 채지지, 성말생은 사면(赦免)하라."

박습과 이관과 심정을 서교(西郊)에서 목 베다. 생략…

심정의 형 승(僧) 도생(道生)을 옹진(甕津)으로, 인봉(仁鳳)을 해진(海珍)으로, 징(澄)을 동래(東萊)로, 조카 석준(石雋)을 낙안(樂安)으로, 귀양 보내고, 심온의 서자(庶子) 장수(長守)를 사천(泗川)으로, 성말생을 삼척(三陟)으로 귀양 보내다. 박습은 옥중(獄中)에 있다가 죽다. 상인이 수례에 올라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고 하다. 허지가 말하기를 "상왕께서도 박습의 죄를 의심하시고 계신데, 박은이 다시 청하여 이에 목 베었습니다."고 하다.

선지하기를, "심씨(沈氏)가 이미 국모(國母)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찌 천인(賤人)에 속할 수 있겠느냐."하여 인봉 등이 이로 말미암아 천인이 됨을 면하고 양민(良民)이 되다. 선지하기를, "심온의 아내와 네 명의 어린 딸을 천인에 속하게 할 때는 임금의 윤허를 얻어 시행하라"고 하다. 상왕이 영돈영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병조, 이조판서를 불러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后妃)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刑律)에도 연좌(緣坐)한다는 명문(明文)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恭妃)에게 밥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경(卿)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다. 생략…

박은이 상왕의 앞에 모시고 앉았다가 말을 하는 김에 아뢰기를 "궁중(宮中)이 적막합니다. 그 뜻은 대개 중궁(中宮)을 마땅히 폐(廢)할 것을 말함이다. 상왕이 그 뜻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고 하다.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 등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중궁을 폐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평민(平民)의 딸도 시집을 가면(친정 가족에) 연좌 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沈氏)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폐출(廢黜)하겠는가,"고 하고 인하여 임금에게 말하기를, "죄인의 딸인 까닭으로 외인(外人)이 반드시 이를 의심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찌 법관(法官)이 마땅히 정할 바이겠느냐."고 하니, 조말생, 원숙, 장윤하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형률(刑律)로써 논 하오면 상교(上敎)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처지에서 논한다면, 심온은 곧 부왕(父王)의 원수이니, 어찌 딸로서 중궁(中宮)에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까. 은정(恩情)을 끊어 후세(後世)에 법을 남겨두시기를 청합니다."하니 상왕이 대답하지 않다. 박은이 병조(兵曹)에 나아가서 당상관(堂上官)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고 하다. 상왕이 이 말을 듣고 이에 유정현, 허조, 허지와 의정부 당상관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경(經서경)에,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그 전의 민씨(閔氏)의 일도 또한 불충(不忠)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자고 의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전일에 가례색(嘉禮色)을 세우라 명한 것은 빈(嬪)과 잉첩(媵妾몸종)을 뽑으려고 한 것뿐이다."하니, 유정현은 대답하지 않고, 박은이 아뢰기를, "신 등도 또한 금지옥엽(金枝玉葉)이 이와 같이 번성(蕃盛)하오니, 왕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일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빈과 잉첩을 갖추게 하고자 함이 심히 마땅합니다."하니 상왕이 매우 기뻐하였으며, 인하여 혼가(婚嫁)를 금하도록 명하다.

12월초3일 의금부에서 심온의 아내와 여러 딸들을 천인(賤人노비)에 속하게 하자고 청하니, 상왕이 여러 형들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하다.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여러 형들의 천인됨을 면한 것은 신 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오니, 아내와 딸들은 천인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하여 상왕이 그 말대로 좇고 명하기를 "비록 천인에 속하게 하더라도 역사(役使일을시키는)는 말도록 하라."고 하다. 의금부에서 또 심온의 가산(家產)을 적몰(籍沒재산을 몰수) 하기를 청하므로, 상왕이 박은에게 묻기를, "왕비의 집을 적몰하는 것이 의리상 되겠느냐."고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죄가 있는 신하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특별한 은전(恩典은혜를 베풀어)을 내려 그 가산을 적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고 하다. 의금에서 다시 청하므로 이에 그 청함에 좇기로 하다.

의주목사 임귀년(任龜年)은 심온이 천거한 사람이오며, 또 심온의 집종이 일찍이 심온을 맞이하려고 의주(義州)로 갔사오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체포(逮捕)해야 할 것이며, 또 임귀년의 관직을 갈아서 변고(變故)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여 즉시 지인(知印) 강권선(康勸善)을 보내어 이욱(李勗)에게 전지(傳旨명을 전달)하기를, 임귀년의 관직을 이미 파면하였으니, 속히 역말(驛馬)로써 보낼 것이며, 또 심온의 종을 단단히 가두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또 강선권으로 하여금 선지(宣旨임금의 명을 선포)로써 관찰사에게 일러, 요긴한 길목을 지켜 다른 사람이 심온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전 부윤(府尹) 우균(禹均)으로 삼고모의(毛衣)와 관(冠)및 신을 주다.

5일 심온의 처제(妻弟)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안수산(安壽山)이 종을 보내어 심온을 길에서 맞이한 이유로써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종을 보낸 사람은 심온의 아내이고 수산은 아니오니, 이를 신문(訊問)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상왕이 명하여 "모두 다 석방하게 하라. 역관(譯官) 전의(全義)로 하여금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연산참(連山站)으로 가서 심온을 기다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잡아오되, 연산참을 지나가지 말라, 온이 만약 사신과 함께 오거든 어머니의 병을 핑계하고 불러내어서 잡아오게 하라."고 하다.

초6일 상왕이 박은, 이원, 조말생에게 의논하니, 박은 등도 또한 아뢰기를, "마땅히 전의로 하여금 이욱과 더불어 뒤 좇아 팔참(八站)까지 갔다가는 돌아서 와야 할 것이요, 연산까지 가서는 아니 됩니다." 고 하다. 전의가 광탄로(廣灘路)에 이르러 심온의 종을 만나서 곧 돌아오다. 상의원별감(尙衣院別監) 임군례(任君禮), 김을현(金乙賢) 신이(申頤) 장합(張合) 등의 직을 파면하니. 심온에게 친밀한 까닭이다.

(다음호에 계속)

안효공사당 안효사

첨정공 선무공신파(僉正公 · 宣武功臣派) 宗中 探訪

첨정공 선무공신파
會長 沈 載 圭

형제농원(소나무전문) 경영(經營)
고창군 3, 4대 군의원

- 종회 설립동기와 목적

1988년 12월 1일 선무공신 휘:우신(諱 友信)의 구국희생정신과 덕업을 숭모하고 선영(先塋)을 보호하며, 선조님들의 유업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살려 후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종원 상호간의 화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본 종회를 설립하였다.

- 종회 구성원

본 종회의 구성원은 11世祖 첨정공 휘:우신(僉正公 諱:友信)의 출생지인 김포를 비롯하여 장성, 부안, 포천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회구성은 다음과 같다.

顧問(相執) 會長(載圭) 副會長(雨燮 殷燮) 監査(載聖) 總務(載瑩) 財務(泰燮) 理事(相仁 輝燮 孝燮 贊燮 京燮 正熙 載澈 載玉 載君 昌善)

* 첨정(僉正) : 조선시대 돈녕부·훈련원 등에 두었던 종4품직

* 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신하들을 표창한 훈호(勳號)

- 종회연혁

1713년(숙종 39년) 장천원 창건
1988년 청송심씨 선무공신파 종중설립
1989년 장천원 유허지 상무대 수용
1990년 장천사 이건 표의사로 개명
1996년 심우신 장군 동상 건립(상무대내 정문 우측 경내)
2001년 표의사(彪義祠) 보수공사
2016년 표의사 2차 보수공사(主管 會長 載圭)

僉正公(宣武功臣) 沈友信 將軍의 行蹟

1) 첨정공의 가계도

5世 溫(안효공)-6世 澮(공숙공)-7世 瀚(이경공)-8世 順徑(호양공은 판관공 湲의 차남 出系)-9世 興源(진사공)-10世 鏏(곡산공은 수찬공 達源의 4남 出系)-11世 友信(곡산공의 5남 중 3남)-12世 詡, 극, 誠2)

2) 장군의 행적

심우신 장군께서는 안효공의 6대손으로 中宗 39년(1544년 8월 21일) 경기도 김포에서 곡산군수(谷山郡守) 휘:수(諱:鏏)와 박씨 정랑 박종호의 딸) 사이에서 5남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명석하여 일찍 문장을 습득하였고, 필법에도 능하였으며 활쏘기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1567(宣祖 元年)년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과 웅진현령 등을 거쳐 군기시첨정(현재의 국방부 4급 공무원)이 되었다.

1591년 모친상을 맞아 관직을 사임하고 상제로서 집상 중 이었으나 1592년(宣祖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포의 가재를 정리하고, 가족을 이끌고 해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군기와 군량을 확보하고 창의(倡義-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킴)한 곳이 지금의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이다. 표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의병 수천 명을 모집하여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出兵한 곳이 바로 현 장성군 포병학교 포술훈련장이다.

1592년 9월 출병한 표의 의병은 同年 10월1일 청주성을 탈환하고 황간 전투에서 고바야가와, 모리 데루모도가 이끄는 왜군과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성수복을 위해 전진하던 중 수원의 독성산성에 있던 권율 장군의 연락을 받고 출전하여 독성산성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1593년 창의사 김천일 장군과 만나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왜적을 추격하던 중 남양도호부 부사 겸 기보 진무사를 제수받았으나 벼슬에 관심이 없는 공께서는 이를 사양하고 한성의 보루(堡壘)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관문인 진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진주성에 입성 동문 파수장이 되었다.

1593년 6월 마침내 싸움은 시작되었다. 의병의 결사 항전으로 왜적의 시체는 산처럼 쌓여 가는데도 왜군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공방전이 20여 일이나 계속되었다. 군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다. 아~이를 어쩌랴! 그 때 촉석루에 창의사 김천일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이 왜적의 칼날에 죽느니 자결하겠다며 남강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표의장군심우신(彪義將軍沈友信)께서는 '나는 무인이니 헛되이 죽을 수 없다' 면서 東門으로 뛰어갔다.

1593년 6월 29일 최후의 일각까지 적과 싸우다가 화살이 다하고 시위가 끊어지자 北向四拜 후 함께했던 의병들과 함께 남강에 그 푸른 기개를 던졌다. 그때 公의 나이는 50세였다.

1605년(宣祖38년) 선무원종 1등 공신 증판결사·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총관으로 추증되었다.

3) 첨정공 선무공신의 유적 - 장천사(長川祠)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567-1번지 (상무대 편입)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표의장 沈友信將軍의 절의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652年(孝宗 3년)에 창건한 사우다. * 사우(祠宇)-따로 세운 사당집

- 표의사(彪義祠)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373(부구마을)

장천사지 일대가 마침내 상무대에 편입되어 부득이 1990년 장천사 를 본손 세거지인 현 위치로 옮겨 사당, 관일당, 충의문, 충절문, 관리사, 강당, 경첨재, 외삼문, 충의문을 짓고 표의사(彪義祠)로 개명현판하고 배향한 사우다.

* 배향(配享)-종묘에 공신의 신주(神主)를 모심

4) 심우신 장군 동상(沈友信 將軍 銅像)

보병, 포병 통신병과학교가 설치된 상무대(尙武臺)는 대한민국 육군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며 "상무대란 무용을 숭상하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이다. 상무대경내에 세운 장군의 동상은 이곳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의 표상(表象)이 되고 있다.

5) 장군의 묘소

장군께서 장남 후(詡)에게 남긴 유언에 따라 의이초혼예(衣履招魂禮)를 올리고 영광 長川祠 소재 내서면 봉루동 진좌에 배(配 全州李氏)와 합장하였으며 의병모집과 의병훈련에 손발이 되었던 배(配 長興林氏) 할머니는 그 좌측에 쌍봉으로 조성하였다가 현 위치로 천장(遷葬)하였다.

* 의리초혼예(衣履招魂禮) : 시신을 대신하여 생전에 입었던 옷과 신으로 초혼제를 지내고 장사(葬事)를 지냄

* 의리(衣履) : 장군의 옷과 신발

- 탐방후기

지면관계로 귀 종중의 우수활동사례, 건의사항 등을 게재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표의 장군의 애국심 발현에 힘쓰는 귀 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탐방취재: 종보편집위원 심수영

첨정공 묘소
증정부인전주이씨 정부인장흥임씨 합폄

첨정공 사당

첨정공 우신 동상 앞에서

청천부원군 증시 안효 심공 神道碑銘 병서

(심씨명현보감 中 발췌)

木有連抱(목유연포) 나무는 아름드리의 큰 나무가 있고
山必穹崇(산필궁숭) 산은 반드시 높고 높도다.
輔有碩德(보유석덕) 왕정을 보필함을 덕으로 함에
世必熙鴻(세필희홍) 세상이 크게 태평 하였도다.
於赫英陵(어혁영릉) 빛나도다 세종대왕이시어
堯舜我東(요순아동) 동방의 요순이로다.
孰爲夔龍(숙위기룡) 그 누가 기·룡인고
藥維先公(예유선공) 오직 공이시었다.
篤生聖任(독생성임) 택임 같으신 왕후를 낳으시어
祜我周宗(호아주종) 주나라 문왕 같으신 우리성군 을 도우시다.
憑以日月(빙이일월) 일월같이 비기시고
契以雲風(계이운풍) 풍운으로 합하도다.
乃戚乃相(내척내상) 국구도 되시고 정승도 되시어
翼于兩宮(익우양궁) 양궁의 날개가 되시도다.
愼嫌諱盛(신혐휘성) 혐의를 삼가고 꺼리기를 다하여
鞠若無躬(국약무궁) 몸 바쳐 진충 하였도다.
棐仁祐謙(비인우겸) 어짐과 겸손을 도웁고 도와
可責玄穹(가책현궁) 하늘에 스스로를 책망하도다.
孰貝以錦(숙패이금) 그 누가 교묘하게 중상하여 죄를 씌웠어도
孰蝀以螮(숙체이동) 무지개 같이 빛나셨도다.
薰胥以織(훈서이직) 궁형을 당하도록 죄를 만들어
奇禍乃訌(기화내홍) 의외의 불행을 입으셨도다.
踢高蹐厚(국고척후) 몹시 두렵고 몸둘 곳을 모르게
百世餘恫(백세여통) 백세가 지나도록 슬픔은 남으리라.
不沒者善(불몰자선) 몰하지 않은 것이 선이오
不埋者忠(불매자충) 묻히지 않는 것이 충이로다.
鬱紆泉壤(울우천양) 한이 구천에 얽힘에
俟時以通(혜시이통) 때를 기다려서 뚫리도다.
天道好還(천도호환) 천도가 좋게 돌아와서
有命崇終(유명숭종) 운명하신 것을 왕명으로 높히시도다.
以牒以牢(이첩이뇌) 직첩을 돌려주시고 또한 치제하시고
節惠隨隆(절혜수융) 시호를 내리시어
于滌其寃(우척기원) 그 원통함을 씻으니
不顯其衷(불현기충) 그 충성이 빛나도다.
屈伸勝負(굴신승부) 굽히고 펴고 지고 이기고 지는 것이
理實不瞢(이실불몽) 이치가 실로 어둡지 않도다.
直筆在史(직필재사) 공의 사적이 역사에 직필되어 있으니
永示無窮(영시무궁) 길이길이 끝이 없게 빛나리라.
崇禎紀元後一百有四年 月 日立
明國毅宗皇帝卽位後一百四年
朝鮮朝英祖七年辛亥(一七三一)年 月 日

안효공 비각

인천지법의 심재완 판사 이야기

심재완 판사

인천지법의 심재완 판사는 하루가 꽤 바쁩니다. 판사의 업무 이외에, 길거리에서 접착제 흡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착제를 사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착제 제조공장을 찾아다니며 환각 물질 성분인 톨루엔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매일 피곤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재완 판사는 왜 귀한 시간과 노력을 이곳에 쓰고 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나 조직 폭력배에게 빚 독촉을 당하는 청소년부터 부모에게 심한 폭력과 학대받는 청소년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환각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접착제를 흡입하다 법정에 끌려와요. 청소년 접착제 중독이 유행처럼 퍼져 있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재완 판사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접착제 흡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런 노력에 힘입어 1년 반 만에 인천 지역의 접착제 범죄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심재완 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이 접착제 흡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판사라는 직업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자주 바라봅니다.

심재완 판사도 어린 청소년들이 혼란 속에서 잘못되는 모습을 봐야 했지만,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이같이 따뜻한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당연히 존경받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 인터넷 발췌 -

각종찬조현황 2018. 7. 26 ~ 2018. 9. 25

종보찬조

300,000	신천공파지경종회(회장 상달)
200,000	완구(경기), 언촌(수원)
100,000	재금(서울)
60,000	강채(전남)
50,000	능봉(강원동해)

장학찬조

1,000,000	광주청광회(회장 재규)

임원회비

부회장회비	300,000	민섭(원주)
		현근(대전)
감사회비	200,000	현보(감사)
이사회비	50,000	상근(전북)
		하섭(강원)
		재중(대전)
		종덕(광주)
		상학(충북)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광주청광회 회장 재규
장학찬조 100만원 2018년 9월

심민섭 화백 (홍천)
종보찬조 50만원 2018년 7월

판사공종회 회장 상우
장학찬조 50만원 2018년 6월

공숙공종중 회장 충택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 6월

대전 孝문화 뿌리축제 안내

- 행사기간: 2018. 10. 05 ~ 10. 07
- 행사장소:「효!월드」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침산동))
- 행사주제: 자연 속 효통 놀이세상
- 행사내용: 개·폐막식 문중(문화)프로그램, 참여(체험)프로그램 등

제18회 효녀 심청 축제 안내

전남 곡성군은 '2017 제3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관광시설 부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제18회 곡성심청축제'를 개최한다.

이번축제는 '효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와 '황후심청 길을 열다. 금의환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다. 가을 장미, 추억의 증기기관차와 심청이가 함께 어울려 현대적인 효의 위상과 의미를 재정립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

- 행사기간: 2018. 10. 06 ~ 10. 09
- 행사장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섬진강기차마을
- 행사이벤트: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효녀 심청 국악대전 준비를 위하여 10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국립남원민속국악원 정승희 명창을 초청하여 심청가를 시연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청송군-심수관가 한·일 다도교류회 오는 10월 11일 개최

올해 4회째를 맞는 청송군-심수관가의 한·일 다도문화교류회가 오는 10월 11일 11:00 청송 문화관광 단지 내 민예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청송군이 조선 도공(朝鮮 陶工) 400년 혼을 잇는 세계적인 도예 가문인 심수관가와 매년 지속적인 다도교류를 통해 청송백자의 우수성과 군민 다도문화 보급 그리고 우리 심문의 본향(本鄕)인 청송의 역사문화와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청광회

"여행경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장학금 1백만원 기탁"

광주청광회 회장 심재규

광주 청광회 심재규 회장을 비롯한 25명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 경비를 최대한 아껴 장학기금을 마련하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노력한 끝에 1백만 원을 절약하여 9월 14일 대종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을 만들어 주신 청광회 심재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8년도 추향(秋享) 참반계획 및 헌관추천

시조~4세조까지 무술년(戊戌年) 추향 봉행에 따른 음복(점심) 준비 및 헌관분정에 참작코자 하오니, 전국 지·파종회 및 종인께서는 시제 참반(參班) 계획 및 헌관 추천서를 2018. 10. 12까지 팩스나 전화로 대종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추향 참반계획 및 헌관배정 추천

추향일정 (양력)		시제 참반 예정인원	헌관 추천	
			구 분	성 명
시조(청송)	10.17.(수)			
2세조(함열)	10.19.(금)			
3세조(안성)	10.21.(일)			
4세조(연천)	10.23.(화)			
4세조비(청주)	10.25.(목)			
2세조(철원)	11. 2.(금)			

※ 헌관배정 신청 '구분'란에는 초헌, 아헌, 종헌, 대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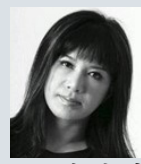
대종회발전위원회 명단

위원장 심상균
- (주)에스피시스템스 회장
- (전)부산종회 회장

위원 심재덕
- 대덕산업 대표이사
- 안동종회 회장
- 안동선비문화 박물관장

위원 심익섭
- 동국대 명예교수
- 한국교수불자연합 회장

위원 심상조
- 대유토건 대표이사



위원 심영철
-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위원 심규선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전)동아일보 대기자

위원 심충식
- (주)선광 대표이사
- 청심회 회장

위원 심오택
- (전)국무총리 비서실장

위원 심달훈
- 세무사
- (전)중부지방 국세청장

간사 심상억
- (전)국회보좌관

당선을 축하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심영미

경기도의회 의원 심규순

충북도의회 의원 심기보

경남도의회의원 심상동

서울송파구의회의원 심현주

서울양천구의회의원 심광식

거창군의원 심재수

종보 대학생기자

심 헌 재 (23. 경북대)

악은공파 25대손

네이버에 8년째 "심헌재의 축구화 리뷰 블로그 (총 방문자수 300만명 돌파)" 운영, '당신의 축구화, 만족하십니까?' 책 출간 등으로 KBS 대구 '행복발견 오늘' 단독 출연, 대구매일신문 보도 및 네이버 스포츠 메인 화면에 게재된 심헌재 입니다.

대구 수성대학교 특강, 영남탑뉴스 학생기자 활동에서 매력을 느껴 '청송심씨 대종회 종보 대학생 수습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청송심문의 위상 정립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공지사항

1) 청송심문 지·파종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파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종회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종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파종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종회에 즉시 통보요망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5) 대종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대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대종회 회장단 및 이사님께서는 임원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